

주소 : <http://www.segye.com/newsView/20170725002324>

포스텍 백승미씨, 나노재료학회 '젊은 연구자상' 수상

포스텍(포항공대) 신소재공학과 박사과정 백승미씨가 '강소성공정을 통한 나노재료학회 (NanoSPD7)'가 선정, 수여하는 '젊은 연구자상'을 수상했다.

25일 포스텍에 따르면 백 씨는 '제어된 집합조직을 지니는 에칭된 초미세 결정립 타이타늄의 전 조골세포 반응'이란 논문을 발표해 타이타늄의 강도를 올리는 기술과 함께 집합조직을 이용한 타이타늄의 활용 가능성을 증명해 화제가 됐다. 'NanoSPD7 젊은 연구자상'은 35세 이하 젊은 과학자에게 주는 상으로 박사 취득 후 3년 이내 과학자들 가운데서 나노재료학 분야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한다.

이 연구는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와 공동으로 수행했으며, 지난 3월에는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논문이 게재되기도 했다. 백승미 씨가 '젊은 연구자상'을 수상한 NanoSPD7 수상식은 최근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다.

포항=장영태 기자 3678jyt@segye.com

2017-07-26 03:00:00

세계일보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세계일보 COPYRIGHT © 세계일보 All rights reserved.